

◎ 美術資料 第三號

國立博物館에서 發刊하는 美術資料는 第三號가 發刊되었는데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 新羅 文武王陵 斷碑의 發見..... 洪思俊
- 大英博物館의 李朝肖像畫..... 崔淳雨
- 英國에서 본 陶製模型塔 二例..... 金正基
- 金海土器片을 내는 潭陽 文學里의 一支石墓..... 金元龍
- 忠南의 立石 數例..... 李殷昌
- 「양팔」 「타지 마할」 「야잔라」 紀行..... 金載元

高麗紺紙銀字寫經

— 第三卷 第一號 通卷十八號 —

妙法蓮華經 全七冊完秩本

趙 明 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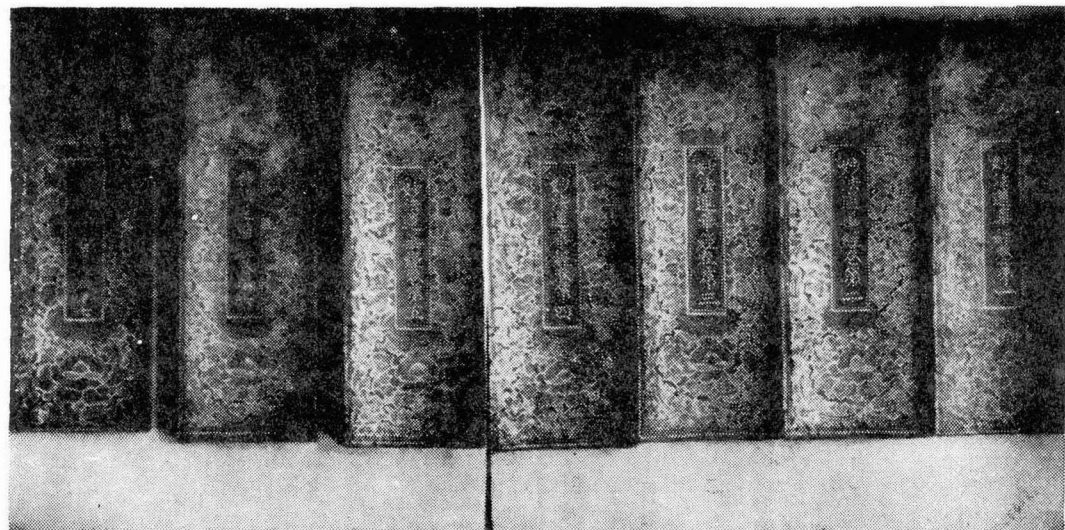
漢譯된 法華經은 本來 八種이 있었으나 모두 散逸되고 現存한 것은 吳의 支謙譯 法華 三昧經六卷, 姚秦의 鳩摩羅什譯 妙法蓮華經七卷, 隋의 闍那堀多譯 添品法華經七卷 等 三種 뿐이다. 其中 西紀四〇六年에 羅什이 翻譯한 法華經七卷二十八品이 譯文이 美妙한 點에 있어서 重要視되는 바이다. 高麗時代의 高麗도 이것을 原本으로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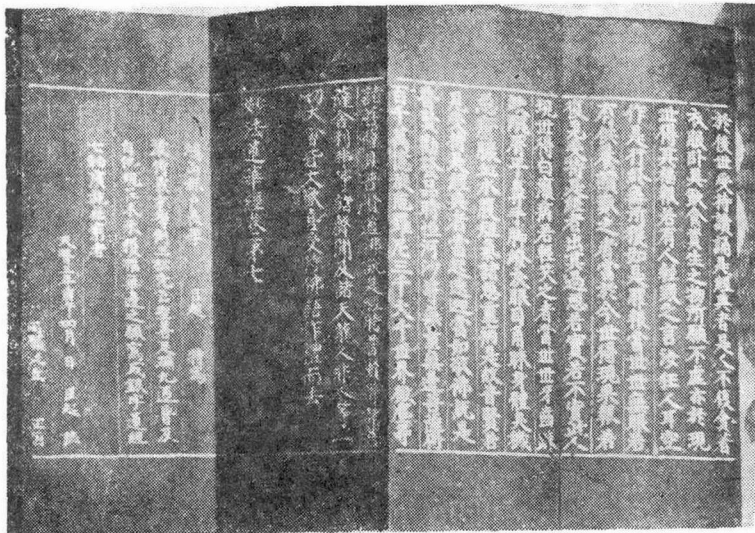
金字 銀字 或은 墨書로 된 麗代의 高麗에 있으나 二冊以上으로 된 것은 完秩이 거의 保存되어 있지 않다. 管理의 不良으로 亡失되는 것은 勿論이지마는 特히 寫經같은 것은 貴重本이라고 하여 한번 書肆 等의 商人의 손에 들어가면 大概는 分冊을 하여 팔게 되는 것이다. 經典의 內容 等은

第三卷 第一號 通卷十八號

相關도 하지 않고 金字가 좋다는 筆法으로 보아 匪懈堂글씨라느니 누구의 글씨 或은 金生의 書體니 하여 글씨로 한문 보게되니 分冊도 좋고 甚至於는 數幅 또는 張張이 찢어서 파는 수도 있다. 이것을 收藏하는 이도 金字나 書體 等을 玩賞한다면 秩冊의 全部는 必要가 없는 同時에 佛經으로서의 內容은 價値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國寶로 指定된 古寫經이 있으나 大部分이 散秩이니 즉 慶北大學校所藏인 麻紙銀字 首楞嚴經은 全十冊中 卷十一冊이고 高城乾鳳寺所藏인 麻紙金書 華嚴經全八十卷中 第四十六卷 一冊이 있고 公州麻谷寺所藏인 紺





紙銀字 法華經 全七冊中 第一과 第六의 二冊이 있고 安東廣興寺所藏인 白紙墨書 法華經 全七冊中 第一과 第三의 二冊이 있고 또 同廣興寺에 紺紙金字法華經 全七冊中 第二인 一冊과 同經으로 別種이 第四卷 一冊이 남아 있다. 그리고 夫安來蘇寺에 白紙墨書로 된 法華經全七卷七冊全秩이 現存하나 이것은 李朝 太宗 九年에 造成된 것이다.

그런데 今番에 黃壽永教授가 求해 온 銀字法華經은 全七冊 二十八品 完本이니 이것이야말로 珍寶라고 아니 할 수 없다. 保存도 良好하고 紙魚의 侵蝕이 若干있으나 磨滅된 處는 없고 金銀泥의 着紙도 잘랐고 退色도 되지 아니하였다. 料紙는 紺色壯紙이고 後에 背接修理한 것이다. 表紙는 厚地로서 四邊

에 字母의 雙金線을 두루고 金泥와 銀泥를 섞어서 寶相花紋을 그렸고 幅판이 無地를 남겨 子母雙線으로서 題箋을 표하고 金泥로 「妙法蓮華經第一」이라고 題目을 써서 品位를 돋우게 하였다. 長이 二十八cm 幅이 十cm의 折帖本이고 每面六行 一行 十七字, 天地는 金泥로 서 大線을 치고 行間도 長이 約二十cm 幅約一·八cm로 野線을 긋고 約一·二cm 平方大의 銀字로

全卷을 通하여 同一人의 筆致로서 楷書로 始終如一하게 整齊되고 雅澹하게 써 있다. 變相은 없고 道宣의 弘傳序는 第三卷初頭に 붙어 있다.

이제 그의 內容을 보면 다음과 같다.

卷第一 九十八面 序品 第一、方便品 第二

卷第二 二百二面 譬喻品 第三、信解品 第四

卷第三 百四面 藥草喻品 第五、授記品 第六、化城喻品 第七

卷第四 百十八面 五百弟子受記品 第八、受學無學人記品 第九、法師品 第十、寶塔品 第十一、提婆達多品 第十二、持品 第十三

卷第五 百十二面 安樂品 第十四、從地涌出品 第十五、如來壽量品 第十六、分別功德品 第十七

卷第六 百八面 隨喜功德品 第十八、法師功德品 第十九、常不輕菩薩品 第二十、如來神力品 第二十一、囑累品 第二十二、藥王菩薩本事品 第二十三

卷第七 九十二面 妙音菩薩品 第二十四、觀世音菩薩普門品 第二十五、陀羅尼品 第二十六、妙莊嚴王本事品 第二十七、普賢菩薩勸發品 第二十八

以上으로 全七卷 二十八品 七百三十四面의 完全無缺한 것을 알 수 있다.

卷第七 末葉에 있는 跋文은 다음과 같다.

鴻山郡戶長李 臣起 特爲

嚴侍義方壽倒三松先亡聖善定足躡九蓮普及自他現在未來獲福無邊之願寫

成銀字蓮經七軸廣施無窮者

天曆三年庚午四月日 臣起誌 同願比丘 正因

數年來 古塔 重修에 말은는 舍利具의 檢出은 그 藏置法의 調査와 더

高麗 金銅舍利塔과 靑盜壺

黃 壽 永